

금호그룹 구조조정 3년 “쉽지않네”

산업 ‘감자’ 추진·타이어 채권 5000억 연장 촉각...연내 졸업 어려울 듯

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졸업 여부 실사 중

위크아웃(기업개선팅) 3년째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올해 졸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불황과 일부 채권은행의 대출금 회수 추진 등으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산업·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올해 위크아웃을 졸업하기 어렵게 됐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아 조만간 감자(자본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12월 초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자 추진을 확정하고 2012회계연도 말 자본잠식 규모가 확정되면 감자 규모도 정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에 포함된 97개 금융회사 중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 금호산업 위크아웃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시 위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는 올해 말 국내 기관들이 보유한 5000억 원 규모의 채권 만기 연장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정상화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주주인 금호산업 경영 악화로 졸업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으로 신규 노선 진출 등 수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위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돼 2014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채권단과 계약을 맺었다. 당시 금호석화와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무리하게 서둘러보다 안전하게 졸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남뉴스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패소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거부 최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형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되면 이들이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을 통한 그룹 지배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조적인사 등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해 금호석화의 신청을 거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악신도시 ‘근화옥암베아채’ 인기

아파트 832가구 분양 청약경쟁률 1.3대 1

지역 증권 주택건설업체 근화건설(회장 김호남·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15일 근화건설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근화건설이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에 공급하는 ‘근화 옥암베아채’ 아파트 청약 마감 결과, 총 901건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1.3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옥암지구에서 분양한 다른 단지들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최고 청약 경쟁률로, 단지내 수영장을 보유한 특화아파트의 장점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향토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남악신도시 옥암지구의 마지막 명당부지에 들어서는 옥암 베아채는 832가구 대단지 프리미엄과 뛰어난 특화설계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12~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 34A형(217가구), 34B형(223가구), 35형(392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평형대로 구성됐다. 목록 최초로 단지 내 실내수영

장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테마파크, 6.6㎡의 넓은 전실 내 식품저장고, 남쪽을 향한 주방 배치, 넓은 호텔식 욕실, 10cm 높은 천장고 등을 갖췄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인론의 악의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입지조건과 특화설계로 선전했다”며 “영산호 조망권, 옥암초·중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훌륭한 교육여건, 옥암지구 최고의 행정·생활편의시설이 이미 형성된 옥암지구로 입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이 이미 35% 진행돼 빠른 입주가 가능한 데다 계약금만으로 옥암지구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오는 19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계약에 들어간다. 분양 문의 061-287-7878.

한편, 김호남 회장은 허정무·거스리딩크루즈재단에 유소년축구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9일 문을 연 근화 옥암베아채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근화건설 제공>

쇼핑·문화·오락 한 곳에서 즐긴다 충장로에 ‘스트리트엔터테인먼트’ 조성

광주 황금동 테마 상가 ‘the Road Hills’ 내년 1월 개장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지상 4층 규모의 멀티 테마 상가 ‘더 로드 힐스(the Road Hills)’가 내년 1월 들어선다.

광주에 처음 도입되는 스트리트형 멀티 테마 상가인 ‘the Road Hills’는 일본 명물인 ‘오모테 산도 힐즈’에 버금가는 최첨단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상 4층에 총 61개 점포가 입점 예정으로 쇼핑, 문화,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 일산의 ‘라세스타’처럼 특종 계층의 특화된 곳과 달리 젊은층부터 가족단위 쇼핑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설계됐다. 상가 가운데에 광장을 설계하는 중정 구조를 채택해 문화공연 등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광장에서 2층 마당, 옥상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로는 산책을 하듯



‘더 로드 힐스’의 모델인 서울 인사동 명물 쇼핑센터 ‘섬지길’.

쇼핑과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엔터테인먼트(Streetainment)’로 조성된다.

전체 콘셉트도 젊음의 거리의 흥장로의 특성에 맞게 길이라는 공간을 재해석해 마련한 신개념 테마상가다. ‘the Road Hills’는 단순 쇼핑형태의 건축물을 지향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고 소통하고 즐기는 광주 충장로의 연장선상에서 지어질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 최고의 중심상권이자 광주 1호선 금남로 4가역과 인접해 접근도 용이하다.

오준철 모드엔터테인먼트(주) 대표는 “광주에 첫 도입되는 멀티 테마형 스트리트형 상가인 ‘the Road Hills’는 충장로의 쇼핑 문화 오락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며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2-223-225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저축銀 80% 적자...추가퇴출 불가피

저축은행 4개 가운데 3개꼴로 올해 하반기에 적자를 내고,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연내 추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 등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회계연도 기

준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HK·동부·골든브릿지·공명 등 4개 저축은행만 10억~30억원대 소규모 흑자에 그쳤다. 1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2998억원이다.

모기업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울저축은행이 614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를 냈고, 신라저축은행도 553억원 적자를 냈다.

금융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들 저축은행을 검사하고 대주주

에 증자 등을 요구했다.

서울저축은행은 자산 1조8천억원으로, 서울 지역 예·수신 점유율 4위 업체다. 서울·경기에서 영업하는 신라저축은행도 자산 1조6000억원으로 규모가 큰 곳이다.

경기(391억원), 진흥(366억원), 영남(65억원) 등 영업지점별 옛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도 모두 적자다. 이들 저축은행은 예보가 관리하고 있다. /연남뉴스

17·18일 새벽 우체국 금융서비스 일시 중단

오는 17·18일 새벽에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우체국금융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 등으로 17일 오전 1~5시, 18일 오전 2~5시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시 중지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폰뱅킹, 스마트

뱅킹, 현금지급기, 체크카드 등 모든 우체국금융 서비스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노후 시스템을 고성능 하드웨어로 전면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우체국금융시스템의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신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연남뉴스

코스피지수	1870.72 (-23.32)
코스닥지수	493.84 (-9.40)
금리 (국고채 3년)	2.78% (-0.01)
원·달러 환율	1086.70원 (+1.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헬로비전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헬로넷 헬로폰

SAVE 최대 56%

1588-3450

HELLOSET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투사랑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현위치: 남구 신안동 4번지

062-576-8938

NAVER 나주혁신도시 찾기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2월 1일 오픈

062-576-8938